

벤처넷(venture.smba.go.kr) 협회로 이관

벤처기업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관리와 종합지원을 목적으로 그동안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던 벤처넷(venture.smba.go.kr)이 협회로 이관된다.

벤처넷 이관은 지난 2월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에 의해 벤처기업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후관리를 위해 추진되었다. 협회는 벤처넷을 향후 벤처기업 현황 파악 및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협회는 그동안 벤처넷 이관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지난 8월 벤처넷 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했다. 공개설명회와 제안서 심사 등을 통해 선정된 스타브리 커뮤니케이션은 벤처넷과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및 벤처넷 웹사이트 개편, 그리고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운영중인 서버 및 관련 장비 등은 9월 중에 서울로 이전된다. 중기청은 그동안 벤처넷을 춘천시에 위탁 관리해왔다. 협회는 우선 벤처넷을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벤처법에 따라 벤처확인정책 변경 내용을 적용하는 한편, 벤처기업 온라인신청 기능을 구현할 계획이다.

따라서 협회는 개편 작업이 진행중인 벤처넷 및 관련 데이

터베이스간의 통합을 통해 신속하고 유기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향후 통합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정확한 벤처기업 현황 파악을 통해 벤처 정책개발의 기초자료로 사용함은 물론 인적, 물적 네트워크 구축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 개발에 주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통해 벤처넷이 전체 벤처기업의 경쟁력 강화의 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벤처넷을 협회 홈페이지, INKE 홈페이지 등 관련 웹사이트와 연동할 수 있도록 구축하고, 이를 계기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회원사에 제공할 것이다.

한편, 협회의 수익성 제고를 도모하여 회원사 전체에게 보다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벤처넷 데이터베이스 및 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는 부가서비스를 개발하는 중이다. 부가서비스는 크게 Recruiting 및 교육 프로그램, 혁신능력평가 및 경영실태조사 재교육프로그램, Industry Map 발간사업, 그리고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Agency 프로그램 등이다. 즉, 회원사 모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벤처넷을 적극 활용할 계획인 셈이다.

문의 : 국내사업팀 박정배 팀장(02-562-5914)